

## 문학·사학·철학 통합의 방법과 사학연구\*

— 金富軾의 史學과 人文學 傳統의 재인식 —

崔 柄 憲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1. 서 론

오늘날 人文學은 文學 史學 哲學의 세 영역으로 분화되어서 각기 독립적이고 서로 배타적인 분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 근대이전의 전통학문에서는 文史哲이 전 학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일체를 이루어 왔다. 물론 전근대이전의 학자들도 개인적 취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문사철의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거나 특정 분야에서 특장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문사철 상호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사철이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전통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서양 제국주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시대를 겪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전통과는 단절된 채 일본을 통하여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수입된 서양의 근대학문의 영향으로 문학 사학 철학은 각기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문사철 통합의 전통학문과 세분화된 근대학문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인문학은 전통문화의 이해에 근본적인

---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지원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인문학'의 위기라고 표현될 정도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인문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 문학, 사학, 철학 가운데 특히 歷史學의 예를 들면 문학이나 철학 분야와는 담을 쌓은 고립된 상태에서 학문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전통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학의 모순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학 자체의 발전에도 저절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우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歷史家로 평가되고, 현존 最古의 사서인 『三國史記』를 편찬한 金富軾 史學의 재검토를 통하여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학문으로서의 현대 역사학의 문제점을 밝혀보려고 한다.

## 2. 金富軾 史學의 理解方法論

金富軾(1075~1151)은 고려중기의 대표적인 政治家이자 官僚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儒學者의 한 사람으로서 周公과 孔子의 학문을 중지로 받든다고 표방하면서 儒教倫理의 실천과 儒教政治理念의 구현을 위하여 평생 진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유교적인 정치와 예의질서를 내세우면서 權臣 李資謙의 참란한 행위를 지적, 견제하는 노력을 하였고,<sup>1)</sup> 정치적·사상적 입장의 차이에서 西京 출신의 문인 鄭知常·術僧 妙清一派와 대립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sup>2)</sup> 또한 그는 대외정책 등의 문제를 놓고 尹彥頤 등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는데,<sup>3)</sup> 이것도 유교적 이념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김부식은 당대 일류의 詩人이자 文章家로서 활약하여 그의 형

1) 『東文選』 권106 待外祖議, 『高麗史』 권98 金富軾傳, 『高麗史節要』 권9 仁宗2년조.

2) 『高麗史』 권98 金富軾傳, 동 권127 妙清傳.

3) 『高麗史』 권96 尹瓘傳 附尹彥頤, 동 권98 金富軾傳, 『東文選』 권35 廣州謝上表, 金子儀 찬 「尹彥頤墓誌銘」.

제인 金富但, 金富儀 등과 함께 翰林院 등의 文翰職에 종사하면서 외교문서를 비롯한 공문서의 작성을 담당하였으며, 시문을 통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그의 문장은 뒷날 크게 평가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자신의 문집은 아쉽게도 뒤에 전해지지 못하였으나, 그의 시문은 崔瀼의 『東人之文四六』과 조선초의 『東文選』, 및 李仁老의 『破閑集』, 崔滋의 『補閑集』 등에 상당한 분량이 실려 있어 뒷시대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김부식은 동시에 歷史家로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일찍이 仁宗 초년 『睿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으며, 관직에서 은퇴한 뒤에는 『三國史記』를 편찬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총정리하여 줌으로써 오늘날 역사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년에는 평생 가까이에서 받들었던 仁宗의 『實錄』 편찬 작업을 주도하면서 인종을 총평가하는 사론을 직접 찬술하기도 하였다. 김부식의 유교적 사관과 역사서술 방법은 전통사학의 전범으로써 뒷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김부식의 사관과 역사서술 방법은 그의 정치가이자 관료, 한문학자이자 유학자, 시인이자 문장가로서의 입장이나 의식세계와 무관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김부식 자신은 역사 편찬작업을 추진하면서 역사가로서의 독립된 입장이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 분야를 분리하여 생각하였을 리도 없다. 전근대의 학문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유학과 한문학, 그리고 사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나아가 사학은 유학에 포함되는 그 일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사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학 분야만 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이 자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철학 등 여타 분야까지 통합된 인문학으로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분야의 틀을 뛰어넘는 학계간의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가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부식의 사학은 근대이후 역사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1926년 申采浩에 의해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朝鮮史研究草)<sup>4)</sup> 이라는 제

4) 『丹齋申采浩全集』中, pp. 103-124.

목의 논문이 나온 이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한 저서와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해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해 경향을 보면 그 대부분이 김부식의 학문과 사상 가운데 특히 사학의 분야만을 분리하여 접근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이었다. 대개의 연구가 김부식의 사학이 儒敎史觀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유교 사관의 성격 문제에 국한된 논란에 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논의 내용이 김부식의 출신 성분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주로 사대주의적·보수적 성격의 문제와 합리주의적인 측면 등 몇 가지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치 평가에 급급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김부식의 사학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공허한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사학에 대한 이해가 그의 출신 성격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유학과 한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김부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문사철 통합의 인문학으로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김부식 학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전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문제점으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유교는 宋의 학문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었으며, 그 결과 고려초기부터 추구해왔던 『貞觀政要』에 의거한 漢唐의 유학을 뛰어넘어 堯舜의 정치, 또는 周公·孔子의 학문을 종지로 받든다고 표방하면서 그의 실현에 진력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김부식의 유교사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함께 그의 유학을 당대의 다른 유학자들의 그것과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부식은 당대 일류의 시인이자 문장가로서 四六駢麗文體의 表箋文을 비롯한 공식문서의 찬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체인 古文을 주창하여 뒷날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의 사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학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역사학에서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시문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여온 가운데 특히 문보다도 생활감정이 더욱 솔직하게 표현되는 문학장르인 시에 대한 이해가 전연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역사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사회는 유교와 불교가 병립하여 유교는 治國의 도리로, 불교는 修身의 근본으로 구별되어 사상의 양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특히 불교는 國敎의 지위를 차지하여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자라고 하더라도 불교에 초연할 수는 없었다. 김부식도 그러한 시대상황에서 유학의 진흥에 평생 진력한 유학자였던 반면에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만년에 雪堂居士라는 호를 갖고 있었으며, 개경 근교에 觀瀾寺라고 하는 개인 願刹을 세워 불교신앙에 심취하는 생활을 영위하였고, 불교승려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김부식은 적지않은 양의 불교 관계의 시문을 남겨주었는데, 이를 통하여도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의 金富軾傳에서 유학자 관료로서의 면모만을 전해 주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史』의 金富軾傳과 金富衍傳 附金富儀傳 등에서는 김부식의 형제로서 형 富弼과 富侁, 그리고 아우 富儀 등 4인만을 들고 있으나, 김부식 자신이 지은 靈通寺의 大覺國師碑文에서는 先兄으로 釋玄湛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일찍이 출가한 형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부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유학 한문학 사학 외에 불교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崔瀞의 『東人之文四六』, 『東文選』 등의 자료에 전하는 시문과 金石文 등 불교 관계의 글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해석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김부식의 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학으로서가 아니라 문사철이 통합된 인문학의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보았다. 다음에는 인문학적 시각에서의 구체적인 이해방법을 논의할 차례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김부식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그와 같은 정치인 관료이자 시인 문장가이면서도 김부식과는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과의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의 학문과 사상에 좀더 가까이 접근하여 보려고 한다. 김부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로는 우

선 尹彦頤와 鄭知常 2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김부식과는 관료로서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학, 문학, 불교 등의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위치에 있어서 대립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김부식의 사학, 나아가 학문과 사상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이해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3. 金富軾과 尹彦頤의 갈등과 사상사적 의미

김부식과 윤언이는 같은 유학자 관료였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대립하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구체적으로 검토한 성과도 발표된 바 있다.<sup>5)</sup> 『高麗史』 권96 尹瓘傳 附尹彦頤傳에는 두 사람의 대립 갈등의 모습을 집약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자료를 편의상 문단을 나누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에 앞서 尹瓘이 왕명을 받들어 대각국사의 비문을 지었는데, 工巧하지 못하다 하여 그의 문도가 비밀히 왕에게 아뢰어 김부식을 시켜 다시 찬술하게 하였다. 때에 윤관은 相府에 있었으나 김부식이 사양하지 않고 마침내 지었으므로 윤언이가 마음에 이를 끼고 있었다.
- (2) 어느날 임금이 國子監에 행차하여 김부식에게 명하여 『周易』을 강론케 하고, 윤언이를 시켜 묻고 논란케 하였다. 윤언이가 『周易』에 매우 정통하여 종횡으로 변론하고 힐문하니, 김부식이 대답하기가 어려워 땀이 흘러 얼굴을 적시었다.
- (3) (妙淸이 반란을 일으키자) 윤언이가 (김부식의) 幕下가 됨에 김부식이 아뢰기를,

---

5) 金富軾과 尹彦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이 문제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는 金秉仁의 「金富軾과 尹彦頤」(全南史學 9, 1995)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金富軾과 尹彦頤 사이의 갈등을 사상적·정치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의욕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이 논문에서 시사를 받은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앞세운 결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철저한 해석을 통하여 그 사상적 의미를 재검토하려고 한다.

‘윤언이가 鄭知常과 깊이 서로 결탁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 하여 梁州防禦使로 좌천되었다. 뒤에 廣州牧使가 되니, 사례하는 글을 올리어 자신의 억울한 것을 해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자료는 김부식과 윤언이의 대립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표출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각 사건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어진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그 첫째는 윤관이 찬술한 대각국사비문을 김부식이 사양하지 않고 개찬함으로써 그 아들인 윤언이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둘째는 經筵에서 윤언이가 김부식의 『周易』 강의에 대한 논란을 통하여 곤경에 처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셋째는 묘청난 토벌군의 원수가 된 김부식이 幕下가 된 윤언이를 鄭知常의 일파로 몰아 좌천시키었다는 등의 사실들을 열거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원한 관계가 반전을 거듭하면서 계속되어 표출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는 대각국사의 비문 개찬 문제와 묘청난 등 사상적 정치적 사건과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의 불교계 상황과 유학의 성격, 그리고 나아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검토하면,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원한 관계 이상의 학문적 사상적 차이점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大覺國師碑文의 改撰과 金富軾·尹彦頤의 葛藤

대각국사비문의 개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불교계 상황과 두 사람의 불교 입장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靈通寺의 大覺國師碑文의 陰記에 의하면 윤관이 영통사에 대각국사비를 세우라는 왕명을 받은 것은 義天(1055-1101)이 입적한지 7개월 뒤인 숙종 7년(1102) 5월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비문의 결락으로 그 비문의 찬술과 비석의 수립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高麗史』 윤언이전에서의 윤관의 비문 찬술 사실과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데 윤관은 그때부터 말년까지 相府에 있으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실권자의 위치에 있다가 예종 6년(1111)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윤관 사후 14년 뒤인 인종 3년(1125)에 이르러 김부식에게 대각국사비문의 개찬을 명

하게 되고, 인종 11년(1132)에 가서야 비로소 비가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앞에 인용한 윤언이전에서 윤관이 상부에 있을 때 김부식이 사양하지 않고 개찬하였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김부식의 비문 개찬에 대한 불만은 윤관이 아닌, 윤언이 자신의 문제이며, 두 사람의 불교 입장 차이와 관계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 당시의 불교계 상황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의천 당시 중앙의 불교계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주류적인 종파로 양립하여 경쟁관계를 이루고, 선종은 제3종단의 위치에 있었다. 화엄종 출신인 의천은 화엄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불교계의 개편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性相兼學을 주장하면서 법상종에 대한 화엄종 교학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教觀并修를 내세워 화엄종의 개혁을 추진하는 일방 천태종의 止觀을 가지고 선종 승려를 포섭하여 새로 천태종을 개창하려는 것이었다. 의천에 의한 불교계의 개편작업은 숙종이라는 강력한 왕권의 후원으로 가능하였던 것인데, 결국 선종교단을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의천 이후의 불교교단은 교종계의 화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선종계의 조계종과 천태종의 4개 종단의 체제가 되어 서로 경쟁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정치세력 간의 싸움에 개재되어 파란을 겪기도 하였다. 대각국사비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부식과 윤언이의 갈등도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과 무관한 것일 수 없었다.

김부식과 불교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주목되는 사실은 그와 교류한 승려들이 모두 화엄종에 속한 의천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점이다. 김부식과 교류하였거나 관계된 화엄승려로서는 惠素, 戒膺, 慧觀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혜소이다.

西湖의 僧 惠素는 內典(佛經)과 外典(儒教經典)에 해박하고 특히 시에 재주가 뛰어났으며, 필적도 또한 절묘하였다. 일찍이 대각국사를 스승으로 섬겨 高弟가 되었다. (중략) 항상 국사를 따라 다니며 문장을 토론하였다. 국사가 세상을 떠나자 行錄 10권을 찬술하였는데, 金侍中(金富弼)이 이것을 줄여서 비문을 만들었다. 혜소가 서호 見佛寺에 가서 거처하였는데, 방 안에 다만 방식 크기만한 靑石 한 장만을 두고 때



때로 글씨를 쓰면서 소요하였다. 시중은 致仕한 뒤에 나귀를 타고 자주 찾아와서 날이 저물도록 도를 談論하였다.(후략) (破閑集中)

(전략) 뒤에 詩僧 惠素가 시를 짓고 시중 김부식이 이에 화답하였는데, 듣는 이가 모두 화운한 것이 幾千篇이 되었으므로 드디어 큰 시집이 되었다. (破閑集中)

김부식과 교류한 惠素는 詩僧으로 유명하였는데, 바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였다. 위에 인용한 자료에서는 김부식이 만년 벼슬을 그만둔 뒤에 견불사에 머물던 혜소를 찾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도를 담론하고, 시를 화답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앞선 인종 3년(1125)경 중견관료 시절부터였다. 김부식의 대각국사비문 개찬이 바로 혜소가 지은 대각국사의 행록 10권에 의거한 것이라는 사실은 두 사람의 교류가 일찍부터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그러한 인연으로 김부식이 대각국사비문의 개찬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런데 김부식의 대각국사비문에는 김부식이 젊은 시절 일찍이 의천을 직접 만났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여 주고 있다.

국사가 일찍이 신(김부식)의 先兄 釋玄湛을 불러 놀기를 아주 즐겨하였는데, 그때 서로 아는 친분이 種子期和 伯牙의 교분 정도가 아니었다. 신이 이로 말미암아 한번 뵈었는데 그 얼굴 빛이 청수하여 마치 靑天白日 같았다. 그런데 하찮은 신에게 앉아서 말할 기회를 주어서 낮부터 이슬한 밤까지 周易과 老莊學의 중요한 대목 몇 곳을 시험삼아 물었으므로 신이 말씀드린 일이 있었다. 뒷날 국사는 칭찬하기를 ‘湛師의 아우 또한 才士로다’ 하였다. 그런지 얼마 아니되어 국사는 입멸하였다. 아, 신비는 진정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설사 죽을 수도 있을 것이요, 비록 머리를 길에 퍼서 밟고 가게 하더라도 또한 즐거워하고 사모할 것이어늘, 하물며 문자로써 비석 아래 이름을 거는 일이 어찌 영광과 다행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김부식의 형인 玄湛은 법상종에 속한 승려로서 승과에 급제하고 개경의 崇敎寺에 주석하여 화엄종에 속한 의천과는 종파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엄종과 법상종이라는 두 종파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담은 의천의 불전 간행에 참여하여 『地持論義

記』 같은 唯識 관계 불전의 校勘을 맡아 도와 주고 있었다.<sup>6)</sup> 김부식이 출가한 형을 통하여 의천을 직접 만난 것은 의천의 말년, 김부식으로서도 25세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문 찬술의 인연을 강조하기 마련인 비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김부식은 의천에게서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을 짐작케 한다.

김부식은 대각국사비문에서 의천의 인물과 행적에 대하여 이례적이라 할만큼 여러 면에서 조목별로 극찬의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불교의 업적에 대한 평가 내용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止觀을 가지고 1,000여 명의 선종 승려를 포섭하여 천태종을 새로 개창한 업적에 대하여 김부식은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국사가 이 때에 經文에 의지해서 이치를 나타내고, 이치를 궁구하여 마음을 다 하심에 止와 觀이 뚜렷하여 말할 때나 설 때나 자재하였다. 문자만을 믿고 지키는 폐단을 뽑아 없애고 惡取空의 고집을 깨뜨리니, 일시에 학자들이 성인의 경계를 우러러 옛 것을 버리고 스스로 귀의해 온 자가 거의 1,000 명에 이르렀으니, 성대하였다. 세상에서 천태종을 논의하는 이들이 국사를 百世의 으뜸가는 宗匠이라고 하니, 어찌 그 말을 믿지 않겠는가.

다음 경전의 주석과 같은 교학의 연구에만 치우치고 실천방법으로서의 觀

6)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便利堂, 京都, 1936, p. 66.

의천에 의해서 조판된 불전 가운데 『地持論義記』는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간기에 의하면 壽昌 3년(肅宗 2, 1097)에 興王寺에서 간행되었으며, 校勘을 담당한 사람은 講瑜伽論崇教寺大師賜紫沙門臣 玄湛, 講瑜伽論玄化寺大師賜紫沙門臣 會凡, 講瑜伽論玄化寺大師賜紫沙門臣 覺樞 등 3인임을 알 수 있다. 唯識學 경전인 『地持論義記』의 교감을 담당한 사람이 모두 법상종에 속하는 玄化寺와 崇教寺의 唯識學 僧들이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모두 僧科를 거쳐 大師라는 僧階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玄湛은 의천과의 관계나 연대상으로 보아 김부식의 형인 현담과 동일인에 틀림없다고 본다. 김부식이 영통사의 대각국사 비문을 찬술할 당시에는 이미 입적한 뒤였던 것으로 보이며, 김부식의 만형으로 전하는 金富弼이 科擧에 급제한 시기(宣宗 5년, 1093)를 고려하면, 玄湛은 김부필과 나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이 결여된 均如 계통의 화엄을 비판하고 教觀并修를 주장하면서 화엄종을 개혁한 업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불법이 梁나라 大通 원년(527) 丁未에 처음 신라에 들어온 뒤 1백여 년만에 의상과 원효가 출현하였으니, 이 두 대사는 十地의 보살위에 오른 聖種性의 大宗師였다. 이들은 末光의 비친 바, 餘波의 가한 바에 모두 그 암흑 속에서 벗어나 그 밝음에 나아갔다. 또한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 되자 법이 잇따라 해이해지니, 세상에서 일컫는 명사라는 이들이 마음은 명예에만 치닫고 지혜는 이익에 어두우며, 학문은 더욱 천박하여 전적을 섭렵하지만 문구를 찢어 발기고 입으로만 떠들썩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좋아하니, 후세 사람들은 그 그릇된 것을 답습하여 돌이킬 수 없다. 국사가 이에 습속의 몽폐와 도덕의 침체를 근심한 나머지 격앙하고 분발하여 도를 밝히고 몽폐를 구할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曲學을 몰아내고 오묘한 진리를 보이며, 깊숙이 가려진 것을 드러내고 나태함을 불들어 일으키며, 雷霆이 진동하듯, 雨露가 관개하듯이 하였다. 비록 마음으로 간간히 심복하여 기꺼이 따르는 자가 있었지만 여러 異端들이 정도를 미워하여 훼방이 물끓듯 하였다. 그러나 도로써 자처하여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태연하였으므로 마침내 기뻐하여 점점 바른 데로 돌아왔다. 다른 날 편벽된 식견으로 망령되어 집착하는 자들이 얼굴을 고치고 마음을 옮기어 근본을 배우는 데 힘쓰게 되었다.

그 다음 禪宗에 대해서는 대각국사가 禪을 教에 의거하는 習禪과 教를 떠나서 禪을 설하는 說禪으로 나누고, 달마 계통의 說禪者는 그 명목에 집착하여 그 實을 잃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선종에서도 경전을 공부할 것을 권장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필하고 있었다.

국사가 일찍이 말하기를, “禪家에서 이른바, 筌蹄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것은 곧 上上根智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下士가 口耳之學을 가지고 한 법을 깨달았다 하여 스스로 만족을 삼고 三藏 十二分教를 가리켜 芻狗요 糟粕인데, 어찌 죽히 보잘 것이 있느냐 고 하는 것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고, 『楞伽經』과 『起信論』 등의 經論을 배울 것을 권하였다.

김부식의 의천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의 표시와 그 불교 업적에 대한 대단한 찬사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의천의

불교에 크게 공감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의천의 불교에 대한 김부식의 표현 내용은 의천의 불교에 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찬케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惠素 등의 불교 입장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였던 것이며, 김부식이 또한 그것에 크게 공감하였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부식에 의한 비문의 개찬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대각국사비문의 개찬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陰記에서의 대각국사 문도들의 명단이었다고 본다. 惠素가 왕명을 받들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문도들의 명단에는 의천의 스승인 景德國師 爛圓의 문도, 그리고 심지어 난원의 문도 가운데 의천이 수학하였던 스승이나 선배들도 대각국사의 문도들의 명단에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 원래의 비문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추측컨대 의천이 세상을 떠나고 예종대 이후에 가서 중앙의 불교계에서는 의천의 화엄종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法相宗과 曹溪宗이 크게 대두하고 있었다. 그 반면 화엄종은 다소 침체되어 가는 가운데 화엄종단 안에서는 의천의 직계 제자들이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었으며, 그러한 파란을 겪는 과정에서 尹瓘이 찬술한 대각국사비는 마침내 수립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김부식이 지은 興王寺弘敎院華嚴會疏에서는,

이에 삼가 살펴 보오니 興王寺라는 절은 문종 인효대왕께서 발원 창건하시어 佛事를 장엄하게 하던 곳이었으며, 대각국사가 (이 절에서) 불교의 이치를 드러내 밝히어서 큰 이익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 30년이 가깝도록 敎義는 점점 쇠퇴하여졌으나 능히 계승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공손히 遺志를 이어 중흥하기를 생각하고, 대각국사의 수제자 戒膺과 학도 160인을 초청하여 弘敎院에서 이달 모일부터 시작하여 약 37일 동안 화엄법회를 열었습니다.(후략)<sup>7)</sup>

라 하여 그간의 사정을 전하여 주고 있다. 『高麗史』 仁宗世家에 의하면, 인종 6년(1128) 3월 경인일에 왕이 흥왕사 薦福院에 옮겨 머물렀으며, 이를 뒤에 흥교원에서 5일 동안 화엄법회를 친설하고, 무술일에는 왕이 弘圓寺에 가

7) 『東文選』 권110, 興王寺弘敎院華嚴會疏.

서 飯僧한 바 있으며, 인종 12년(1134) 8월 임인에는 山僧 戒膺을 불러 화엄경을 강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앞서 인용한 김부식의 화엄회소에 나오는 법회는 바로 인종 12년의 화엄법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김부식이 찬술한 영통사의 대각국사비문은 인종 3년(1125) 7월 경오일에 찬술의 왕명을 받았으며, 인종 11년(1133) 경에 비석이 세워졌던 사실을 보아 인종대 영통사의 대각국사비의 수립을 전후하여 의천의 직계 제자들이 惠素와 戒膺 등을 중심으로 다시 개경의 불교계에 등장하여 의천의 선양과 화엄종의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윤관의 비문을 ‘문장이 不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폐기하고 김부식에게 비문을 새로 짓게 하면서 문도들의 명단도 직계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개찬 과정에서 처음의 비문을 찬술한 바 있는 윤관의 아들이 되는 尹彦頤로 부터 강한 불만을 샀던 것으로 보인다.

尹彦頤(1090-1149)는 문하시중을 역임한 바 있는 윤관의 아들로서 대표적인 문벌이자 유학자 가문의 출신이었다. 『高麗史節要』 권7, 睿宗 6년 5월조에 의하면,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학문을 좋아하여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將相이 되어서도 비록 軍中에 있을지라도 五經을 지니고 다녔다.

고 할 정도로 윤관은 학문에 열중하였으며, 숙종 7년(1102) 3월에는 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한 적도 있으며, 예종 원년(1106) 12월에는 經筵에서 『尙書』 無逸篇을 강론하기도 하였던 당대의 명망 있는 유학자였다. 윤언이도 예종 9년(1114)에 과거에 급제하고, 翰林職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켜 인종 때에는 經筵에서 經史를 강론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서도 당대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윤관도 불교를 신앙하여 女眞을 정벌하여 9城을 개척하고, 그 중심지인 英州 성안에 護國仁王寺와 鎮東普濟寺를 창건한 바 있으며,<sup>8)</sup> 또한 그의 두 아들을 출가시켜 승려를 만들기도 하였다. 윤언

8) 『高麗史』 권96, 尹瓘傳.

이도 자신의 넷째 아들을 출가시키고 있었는데, 그는 법명이 孝悖으로서 인종 21년(1143))에 僧科에 급제, 윤언이가 사망한 다음해인 의종 4년(1150) 당시 조계종의 重大師의 승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慧炤國師의 법손인 祖膺이 龍門寺에서 개최한 談禪法會를 주관하여 주기도 하였다.<sup>9)</sup> 한편 윤언이 자신도 만년에는 불교를 흑신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뒤 坡平의 金剛齋에 은거하여 살면서 호를 스스로 金剛居士라고 칭하였다고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하였다. 『補閑集』中에서는 윤언이의 만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해 주고 있다.

文康公 尹彦頤는 늘그막에 더욱 坐禪의 취미를 즐겨 벼슬을 그만 두고는 鈴平郡 金剛齋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金剛居士라고 불렀다.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늘 황소를 타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쉽게 알아 보았다. 그는 慧炤의 門人인 貫乘禪師와 벗이 되어 서로 매우 즐거워 하였다. 그 때 관승은 廣明寺에 살면서 부들로 지붕을 한 암자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약속하기를, “먼저 가는 사람은 이곳에 앉아 죽자.” 고 하였다. 어느날 그는 소를 타고 관승에게 가서 같이 식사한 뒤에 “내 죽을 때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작별하러 왔다.” 하고 말을 마치자 이내 떠났다. 관승은 사람을 시켜 그 뒤를 따라 그 암자까지 보내 주었다. 공은 그를 보고 웃으면서, “선사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구나. 내 걸음은 결정되었다.” 하고 “봄과 또 가을이여, 꽃이 피고 잎이 지네. 동쪽과 또 서쪽이여, 마음을 잘 길렀네. 오늘이 도중에서, 이 몸을 돌이켜 보나니. 먼 하늘 만리에, 한 조각 한가한 구름이네.” 하였다. 쓰기를 마치고는 암자에 앉아 죽었다.<sup>10)</sup>

9) 尹彦頤墓誌銘, 龍門寺重修記 등 참조.

10) 『高麗史』 권96, 尹瓘傳 附尹彦頤傳과 『高麗史節要』 毅宗 3년 9월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補閑集』의 내용과 거의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만년에 심히 불교를 좋아하여, 致仕를 청하여 坡平으로 물러가 살면서 스스로 金剛居士 라고 호하였다. 그는 일찍이 승려 貫乘과 空門의 벗이 되었다. 관승이 한 蒲庵을 만들었는데, 겨우 한 사람의 자리를 용납할 정도에 그치게 하고,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죽기로 하였다. 하루는 윤언이가 소를 타고 관승에게로 갔다가 작별하고 곧장 돌아오니, 관승이 사람을 포암으로 보내 왔다. 윤언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사가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도다.” 하고 드디어 포암에 앉아서 사망하였다.』

윤언이는 만년 전에 심취하여 貫乘, 之印<sup>11)</sup> 등 선승들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예종대 曹溪宗의 대표적 승려로서 王師, 國師를 역임한 慧炤國師<sup>12)</sup>의 제자들이었음이 주목된다. 慧炤國師의 문하에는 그 밖에도 坦然이 있어 王師가 됨으로써 이들이 예종대 이후 부흥하는 曹溪宗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윤언이가 조계종에 속한 이들 선승들과 교류하였던 사실은 김부식이 의천의 문도 가운데서 인종대 이후 화엄종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던 교종승려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윤언이는 毅宗 원년(1147) 圓應國師 學一의 비문을 찬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앞서 김부식이 찬술한 대각국사비문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응국사비문에 의하면, 의천의 천태종 개창에 대항하여 선종을 지키려는 學一(1052-1144)의 노력을 특필하려고 하였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비문에서는 먼저 선종의 역사를 서술하여 그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불타의 정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천태종의 祖師說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래께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49년 동안 三乘 十二分敎를 설법하시어 근기의 利鈍에 따라 중생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이른바 正法眼藏은 본래 말이 없는 경지이지만, 부처님께서 일생의 교화가 장차 끝나려 하므로 공간과 시간인 천하와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靈山會上에서 금색 波羅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으나, 오직 摩訶迦葉尊者만이 묵연히 破顏 微笑함으로써 正法眼藏을 전해 받았다. 그로부터 祖祖 相傳하여 以心傳心으로 (결락) 西乾 28祖 중 제27조인 般若多羅에 이르렀고, 이어 達磨대사가 이어 받았다.

- 
- 11) 之印은 예종의 아들로서 9세 때에 혜소국사에게서 출가, 그 문하가 되었다. 의종 9년(1155)에는 鈴平 金剛寺에 머물기도 하였는데, 그 금강사는 앞서 윤언이가 은거하여 머물던 金剛齋가 사찰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之印이 이곳에서 머문 것은 윤언이가 이미 사망한지 6년이 지난 뒤이었지만, 생전에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智勒寺廣智大禪師墓誌銘 참조)
  - 12) 慧炤國師의 법명은 曇眞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예종 2년(1107)에 王師, 동 9년(1114)에 國師가 된 曇眞과 동일인으로 본다. 그는 원래 雙溪寺의 선승이었는데, 일찍이 의천과 함께 宋에 가려고 하였으며, 뒤에 宋에 가서 契丹本 大藏經을 구해오기도 하였다.

東土 禪宗의 제5조인 弘忍대사에 이르러서는 더욱 여러 파로 분리되어 북방의 神秀와 남방의 慧能으로 頓漸이 갈라졌다. 그러나 神秀의 계파는 후세에 단절되었고, 慧能의 문파는 그 지파가 여러 갈래로 크게 발전하여 마치 百川의 衆流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 師資相承을 거슬러 올라가 요약하면 불타의 正宗 하나뿐인 것이다.

다음에 비문에서는 學一이 대각국사의 천태종 개창에 대하여 대각국사의 끈질긴 회유 포섭에도 굴하지 않고 선종을 고수하였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기하고 있다.

대각국사가 宋에 유학하여 화엄교의를 전수하고, 아울러 천태교관을 배웠다. 哲宗 元祐 원년(선종 3년, 1086)에 귀국하여 天台智者를 존송하여 별도로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이때 叢林衲子 가운데 천태종으로 경속한 자가 10인 가운데 6, 7인이었다. 圓應國師는 祖道가 쇠락하여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개연한 결심으로 홀로 몸을 바쳐 지킬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하였다. 대각국사가 사람을 보내어 여러 차례 회유하였으나, 끝내 그 命을 따르지 않았다.

원래 의천은 천태종을 새로 개창할 때에 자신의 화엄종은 그대로 온존시키고, 선종 승려만을 포섭하여 천태종 교단을 조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것은 선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종은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양분되기에 이르렀으며, 천태종과 조계종은 대립 경쟁하는 관계를 이루었다.

한편 대각국사는 천태종을 개창한 다음 해인 숙종 3년(1098)에 화엄종 사찰인 弘圓寺에 圓覺會를 설치하고, 학일을 副講師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는 “禪과 講을 交濫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의천이 주장하는 教觀并修, 즉 教禪統合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우리 肅王 4년이며, 宋의 紹聖 5년 戊寅(1098)에 대각국사가 弘圓寺에 圓覺經法會를 개설하고 원응국사를 副講으로 모시려고 하였으나, 사는 사양하기를 “禪과 講을 交濫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다.” 고 하면서 다만 법석에 참석하여 청강하였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靈通寺의 大覺國師碑文과 雲門寺의 圓應國師碑文의 분석을 통하여 두 비문에서 추구하는 불교의 내용이 상당히 달랐으며, 대조적인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비문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화엄종과 선종(조계종)이라는 불교 종파상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 두 비문의 찬술자들의 불교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비문의 찬술자인 김부식과 윤언이 두 사람은 같은 유학자 관료였으면서도 그들 사이에는 불교승려와의 관계, 그리고 불교관에서 전연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20년전 윤관이 찬술한 바 있는 대각국사비문의 개찬 문제를 둘러싸고 마침내 갈등을 표면화시키기에 이른 것이며, 윤언이의 원응국사비문 찬술은 김부식의 대각국사비문의 찬술에 대한 반격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불교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더욱 심각함이 있었다. 두 사람은 유학과 한문학의 면에서도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였는데, 두 사람의 그 학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그 차이는 국내적으로는 權臣 李資謙과 術僧 妙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법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對金政策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노정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이러한 차이의 기저에는 유교, 불교를 포함하는 고려의 사상사, 나아가 고려의 문화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괴리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유교, 불교, 한문학, 역사학이 통합된 학문적 토대 위에서의 역사인식에 대한 이해 필요성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과제는 經筵 席上에서 『周易』의 해석을 놓고 金富軾과 尹彥顛 사이에 벌어진 論難의 의미를 추적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文學，史學，哲學綜合的方法與史學研究

### — 金富軾的史學與人文學傳統的再認識

崔 柄 憲  
(漢城大學)

在韓國近代之前的傳統學問中，文史哲一直是學問的中心，互不分離，形成一體。儘管近代之前的學者也會根據個人興趣和能力或偏向文史哲某一學科，或在特定領域發揮特長，有時也圍繞着文史哲的關係展開爭論，但文史哲作為一門不可分的整體學問的傳統却始終沒有變化。

進入近代以來，隨着西方帝國主義的侵略和日本的殖民地統治，韓國通過日本受到了西方近代學問的影響，文史哲成為獨立而又相互排斥的領域。這使得今日的人文學在理解傳統文化是方面產生了根本的局限性。

在人文學最重要的三個領域中，歷史一直完全與文學和哲學隔離開獨自展開活動，這不僅使其脫離了追求對傳統文化總體理解的原宗旨，同時也使其自身的發展帶有局限性。本稿正是出于這種危機意識，通過對金富軾史學的再論，指出獨立的、排他的現代史學的問題。金富軾被認為是高麗時代的代表史學家，他編寫了現存最古老的史書〈三國史記〉。

文中分為金富軾史學的理解方法論、金富軾與尹彥頤的矛盾思想史意義、大覺國師碑文的改撰與金富軾尹彥頤的矛盾、圓應國師碑文的撰述與尹彥頤的佛教界立場等四部分，通過分析可見，大覺國師碑文與圓應國師碑文所追求的佛教內容形成鮮明對比。其中固然有佛教宗派之間的差異，也有兩位碑文撰述者對佛教看法不同的原因。

兩位碑文撰述者金富軾與尹彥頤雖同為儒教官僚，但其與佛教僧侶的關係及佛教關却完全相反。此外二者在儒學和漢文學方面也是當時的代表學者，其學問內容同樣大為迥異。二者這種差異的實際反映了對高麗的思想史乃至文化史認識的隔絕。

可以將其總結為：有必要在儒教、佛教、漢文學、曆史學融會貫通的學問基礎之上理解歷史問題。從這一點上來說，下一個課題是：在經筵席上圍繞着《周易》的解釋，追蹤金富軾與尹彥頤之間展開的爭論的意義。